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울산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풍선으로 ‘콜라주’한 유년시절의 동화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A ‘collaged’ childhood fairy tale using
balloons

-Focusing on my artwork-

울산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한주아

풍선으로 ‘콜라주’한 유년시절의 동화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하 원

이 논문을 석사학위 작품론으로 제출함

2022년 8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한 주 아

한주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섭 (인)

심사위원 하 원 (인)

심사위원 김 세 원 (인)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2년 8월

차 례

| | |
|-----------------------------|----|
| 국문요약 | |
| 제1장 서론 | 1 |
| 제 2장 작품내용 및 표현 | 2 |
| 2.1. 유년 시절의 동물에 대한 상상 | 2 |
| 2.2. 콜라주 | 3 |
| 제3장 작품 해설 | 4 |
| 제4장 결론 | 9 |
| 작품도판 | 10 |
| 참고문헌 | 21 |
| 도판목록 | 22 |
| Abstract | 23 |

국 문 요 약

풍선으로 콜라주한 유년시절의 동화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풍선을 재료로 한 본 연구자의 작품은 본인이 유년 시절 즐겨하던 동물에 대한 상상과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된다. 풍선은 어린 시절 ‘놀이동산’에 가면 꼭 손에 쥐고 있던 물건 중 하나였다. 그때의 특별한 기억이 담긴 풍선 오브제로 어린 시절의 동화적 상상을 시각 이미지로 표현하며 작업이 이어진다. 본인의 유년 시절 동물로부터 느낀 상상을 떠올리며 환상과 판타지를 표현함으로써 유년 시절의 기억을 이끌어 내었다.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어린 시절, 그 때의 감정과 기억이 동물에 대한 상상과 결합되어 다양한 조형적 이야기들이 만들어진다.

본 연구자의 작품은 콜라주라는 기법을 이용하여 구성된다. 콜라주란 인쇄물, 천, 쇠붙이, 나뭇조각, 나뭇잎 등 여러 가지 재료들을 풀로 붙여서 구성하는 회화기법, 또는 기법에 의해 제작되는 회화를 가리킨다. 1912~13년경 브라크와 피카소 등의 입체파들이 유화의 한 부분에 사물의 구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신문지나 벽지, 악보 등 인쇄물을 붙였는데 이것을 ‘콜라주’라 부르게 된 것이다. 본인 역시 반짝이는 비즈, 각양각색의 풍선 조각들을 잘라 화면에 붙이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부터 소환된 환상적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상상 속 이야기 속에서 유년 시절 동물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행복한 기억들은 또 다른 호기심들과 함께 재조합되었다. 풍선 조각들로 콜라주된 조형적 요소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어린 시절의 감정,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에 걸맞는 패턴을 사용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것에 작품의 의의를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작품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료의 콜라주에 의한 표현방식으로 이루어진 화면의 조형성과 그것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본인의 주제에 대한 고찰이다.

주제어 : 유년 시절, 동물에 대한 환상, 동화적 세계, 풍선을 이용한 콜라주

제1장 서론

본 연구자는 어렸을 적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상상하며 지어낸 동물에 대한 환상적 이야기를 작품으로 표현한다. 주로 놀이 동산이나 동물원에 가서 볼 수 있었던 동물들을 상상하며 동물들과 친구가 되고 싶었던 과거의 나의 순수한 마음과 현재의 나의 생각을 결합시켜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현대미술의 개념 중 오브제(object)란 생활에 쓰이는 갖가지 물건들을 작품에 그대로 이용한 것이라고 한다. 본래 물건, 객체 등의 의미를 지닌 프랑스어이나, 초현실주의 이후 현대 예술용어로서는 일상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물의 개념에서 벗어나 다른 존재의 의미를 붙인 물체를 뜻한다.¹⁾ 본 연구자는 풍선을 오브제로 이용해 작품을 구상하는데 어렸을 적 내가 느낀 행복, 흥분, 기쁨 등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해준 매개체이며 여러 가지 감정을 풍선에 결합하여 작품을 만든다. 개개인이 보기엔 풍선은 다른 의미로 느낄 수 있겠지만 나에게겐 행복의 감정을 뒤엎겨 합쳐놓은 일부이기 때문에 작품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자는 어렸을 적 엉뚱한 상상을 펼치던 유년시절의 자신이 그리워 과거의 나를 소환하고, 동물에 대한 상상과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은 어린 시절 감정을 작품 속에 재구성하면서 기억과 감정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본론에서는 유년시절의 동물에 대한 상상을 연구자 자신의 감정과 추억이 담긴 풍선 오브제를 이용하여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여 캔버스에 나타내고자 한 의도와 표현기법을 서술하고자 하였다. 감정에 따라 풍선을 자르거나, 붙여가며 패턴을 만들기도 하였다. 때로는 동물의 색상이나 특징에 따라 풍선을 돌돌 말아 새로운 조형적 요소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1) 인터넷 네이버 지식백과 “오브제”

제2장 작품내용 및 표현

2.1 유년 시절의 동물에 대한 상상

본 연구자의 작품에 나타나는 동화적인 이미지는 어린 시절 즐겨하던 동물에 대한 상상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정신 분석학자 융(Carl Gustav Jung)은 “어린 시절은 개개인의 세계와 자신을 서서히 인식하게 되는 점진적인 상태이고, 정서적으로 매우 강력한 시기이며, 어린이들의 최초의 꿈을 상징적인 형태로 묘사하면서 그 개인의 장래운명을 어떻게 형성해나갈 것인지를 풀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²⁾라고 말했다. 기억에 남아있는 동물에 대한 환상과 과거 유년시절의 감정들은 현재의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의 경험과 감상자를 연결시켜준다. 작가는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된 작품을 통해서 감상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러한 공감들은 일상적 경험에 의해 생긴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³⁾ 유년시절의 추억, 기억, 상상을 통해서 난 행복감을 얻고 더 많은 새로운 생각과 동화적인 요소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작업 노트>

“유년 시절의 내가 생각해왔던 동물에 대한 환상과 상상, 어렸을 적 나의 호기심을 유발 시켰던 것들 중에 ‘동물들은 왜 사람처럼 할 수 없는 걸까?’ ‘동물들도 사람과 어울려 지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궁금증을 토대로 여러 종류의 동물에 내가 어렸을 적 생각했던 나만의 판타지를 대입시켜 스토리를 지어내고 이미지를 만든다. 오브제인 풍선을 이용하여 구상을 결합시키는데 풍선은 내게 행복했던 유년 시절이 떠오르는 매개체이다. 꿈 속 동산에서 노는 것만 같았던 그 시절, 가족들 손을 잡고 놀이동산이나 공원 등 특별한 장소에 가는 날이면 내 손엔 꼭 풍선이 있었다. 나와 같이 가족들과 놀러와 양손 가득 무언가 손에 쥐고 지나다니는 아이들처럼 내 양손에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꽉 차 있었다. 특별한 날 특별한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모양의 큰 풍선을 사줄 때면 하루 종일 하늘을 두둥실 떠다니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난 풍선을 보면 유년 시절의 내가 떠올라 행복하고 기억과 추억을 담아 그때의 나의 감정을 나타내어 주는 소중한 물건인 풍선을 이용한다. 유년 시절 내가 있었던 일들과 동물에 느꼈던 감정과 환상을 동화적으로 표현하여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2) 칼 구스타브 융, 어린이들의 꿈 해석, 부글북스, 2019, p.31-33

3) 존 버거, 편집부 역 [이미지-시각과 미디어], 동문예신서, 1990, p28

2.2 콜라주

콜라주(Collage)라는 말은 불어의 ‘coller(폴로 붙이다)’에서 유래된 말로서 일상의 비예술적인 소재, 즉 종이나 형겅을 잘라내어, 그 때 그 때의 선택으로 조화되는 기쁨과 데페이즈망(Depayse-ment)의 법칙에 따라 붙이는 기법은 콜라주 최초의 발생으로 볼 수 있으며 콜라주의 기법은 이후로는 다양한 변화를 갖게 되어 그 범위가 넓어진 반면, 개념은 다소 모호해졌다. 발전된 콜라주는 미래주의(Futurism)를 일으켰다. 다다이즘의 레이메이드(Ready-made), 콜라주 릴리프, 포토 몽타주(Photomontage) 등 새로운 표현기법을 만들어 내었고 이후에도 나타난 팝아트, 정크아트 등과 같은 기법들이 나타났다.⁴⁾

본 연구자의 작업은 유년시절의 기억에서 영감을 받은 동물에 대한 환상과 상상에 더불어 어릴 적 연구자의 기쁨과 행복을 나타내어 주는 재료인 풍선을 이용하여 동화적인 세계로 재구성하였다. 예술가가 만들어낸 예술 작품으로부터 기억의 시각화된 형태와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해석하고, 또 감상자들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곧 예술가의 조형언어와 사회가 유기적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⁵⁾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는 어떠한 그림을 그려도 제한이 없고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해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재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꼭 물감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재료든 본래의 용도나 의미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대상성을 가지고 예술품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자는 다양한 색깔과 여러 가지 모양을 지닌 풍선을 작업에 사용하여 어린 시절 나에 대한 감정을 나타냄으로써 유년시절을 떠올리고자 하였다. 풍선을 이용해 돌돌 말아 더욱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색종이처럼 오려 붙여 다양한 패턴과 무늬도 넣을 수 있다. 다양한 표현 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미있는 많은 재료이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 연구자가 화면 속 환상으로 만들어낸 동화적인 이미지는 어린 시절 동물에 대한 궁금증과 상상을 시각적인 요소로 만들어낸 창조물이자 기억의 조각이다.

4) 편선미, [콜라주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2003, p.16

5) 아니엘라 야훼, 이희숙 역, [미술과 상징], 서울 열화당, 1995, p138

제3장 작품 해설



도판 1) Strange jungle 2/ 2021/ Acrylic, balloon, beads on panel/ 100.0x72.7 cm

강아지가 사탕을 지키기 위해 직접 차를 운전해 파리지옥과 기린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재미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림 구상을 했다. 색감은 푸릇푸릇한 정글을 표현하기 위해 연두색과 청록색을 이용하여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려 하였고 강아지의 표정은 자신만만하고 탈출할 수 있는 확신에 차 있는 얼굴이지만 생각보다 저 앞에 놓아진 수많은 나뭇잎들과 가시덩굴을 제치고 가기엔 만만치 않은 힘든 여정이 펼쳐지고 있다.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들이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고 변하듯이 어렸을 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사탕이나 아이스크림 군것질 종류들이었다. 선생님이 가끔 학원에서 칭찬할 때 주시던 사탕은 나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엔 정말 최고의 칭찬이자 최고조의 순간을 맞이하는 기분이었다. 열심히 수업에 임하고 잘할 땐 여러 개의 사탕을 받았는데 꼭 1개도 못 받은 친구들이 하나만 달라고 할 때 내 사탕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고 회피하고 '네가 잘해서 받아'라는 얄미운 말을 하기도 했다. 그 때의 감정을 토대로 나의 성취감으로 받은 이 사탕을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고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도판 2) Strange jungle / 2021/ Acrylic, balloon, beads on panel/ 116.8x91.0 cm

폭포가 흘러내리고, 흐르는 강물 속에는 현실에선 전혀 볼 수 없는 악어가 비키니를 입고 배영을 하고 저 담벼락에 있는 양들은 눈부신 태양을 조금이라도 차단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쓰고 햇빛을 쬐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날씨는 짹짹하고 밝지만 하늘엔 부분적으로 눈이 내리고 조금씩 쌓여 눈사람이 생기는 재미있는 요소들을 넣어 그림에 표현했다. 어렸을 때 악어라는 동물은 나에게겐 무섭고 매서운 이미지로 자리가 박힌 파충류 중 하나였다. 하지만 첫인상이 험악하고 날카롭다고 해서 성격도 그렇진 않다는 걸 느낀 지금은 첫인상으로 그 사람을 파악하기엔 너무 일부분의 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느낌이 있고 오히려 반전인 성향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배를 뒤집어 배영을 하며 물고기들과 어울리는 악어로 표현하였고 비키니도 입혀 좀 더 친근감을 나타냈다. 어렸을 때 생각하던 무작정 힘만 써서 다른 생물을 잔인하게 잡아먹는 악어가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동물들과 친구로 잘 지내는, 걸모습과는 다르고 속이 깊은 악어로 그리고 싶었다. 모든 동물이 만약 인간처럼 소소한 행복, 느긋함, 트렌드를 알았더라면 지금 이 그림처럼 비키니를 입어 수영을 하고 선글라스를 낀 상태로 햇빛을 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당연히 그럴 수는 없겠지만.....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진행한 작품이다.



도판 3) 호랑이 골프치자-!/ 2022/ Acrylic, balloon, beads on panel/ 116.8x80.3 cm

사람들의 취미 생활이 부러웠던 호랑이와 토끼가 한적한 마을 섬에 들어가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이자 여가 생활인 골프 연습을 하며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어렸을 때 이런 생각과 상상을 많이 하였다. ‘왜 동물들은 사람들과 다를까?’ ‘왜 사람들처럼 운전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운동화를 신고 축구를 하지 않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래서 만약 동물들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하게 된다면 재미있지 않을까? 동물들도 사람처럼 즐거운 취미 생활을 알게 된다면 우리와 같은 공감대를 지니며 즐겁게 같은 여가 생활을 하면 참 즐겁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어렸을 때 상상했던 모습대로 동물들이 취미를 즐기며 골프채를 잡고 조심조심 신중하게 공을 홀에 넣으려고 하는 모습을 사람처럼 표현하였고 두 발로 서 있게 표현하여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동물들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취미와 스포츠 문화를 즐길 수 있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그림에 나타내었다.



도판 4) UP해/ 2022/ Acrylic, balloon, beads on panel/ 162.2x112.1 cm

<UP>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영감을 얻어 영화 이미지를 배경으로 삼아 그리게 된 작품이다. 내용은 재개발과 맞서 집을 지키다가 풍선을 집에다 매달아 하늘로 날아가는 내용을 담은 영화이다. 이 내용처럼 그림 속에 나타난 구름 마을에서도 새로운 주택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늘어나니 더 이상 살 곳이 없어진 강아지 3마리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집을 싸들고 열심히 다른 마을로 피신 중인 모습이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만남을 만들 수 있고 어떤 마을에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채 마냥 모든 것에 설렘만 가득할 뿐이다. 만약 혼자 움직이게 되었다면 불안함 속에 걱정만 가득하지 않았을까? 어렸을 적 나는 강아지의 용맹함 보단 귀엽고 애교 많은 모습이 더 강아지의 이미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많은 반려견을 만나보니 덩치가 크든 작든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쫓고 위협적으로 상대에게 달려드는 것을 본 뒤 나는 느꼈다. 강아지는 자신이 지키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입에 꽉 물어 놓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빠르게 달려간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동물 중 강아지 3마리를 그림 안에 배치시켰고 강아지의 용맹함을 나타내고 싶었다.



도판 5) Feel My Rhythm/ 2022/ Acrylic, balloon, beads on panel/ 64.0x67.0 cm

선선한 여름밤에 동물들이 자기들만의 무도회를 열어 파티를 즐기고 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하여 그린 작품이다. 붉고 보랏빛 밤을 나타내고 싶었고 형형색색 폭죽들이 밤하늘에 터진다. 케익 숲 속에 있는 성에서 달콤함을 느끼며 파티를 즐기는 동물들과 환호하며 폭죽을 터트리는 강아지와 토끼를 나타내었다. 어렸을 적 나는 노래 부르는 것과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 항상 어딜 가나 MP3를 들고 다녔고 안무영상 등 아이돌 영상을 보며 춤 연습을 하곤 하였다. 이런 것처럼 동물들도 춤을 추거나 노래를 흥얼거리진 못하지만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들리면 좋아하고 심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는 기사를 보았다. 난 정말 아쉬웠다. 나는 동물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동물은 우리보다 느낄 수 있는 감정도 적고 하고 싶은 행동도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사람과 공통점이 있다면 음악을 느끼고 좋아한다는 것이다. ‘동물들도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무도회를 열어 파티를 열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음악을 느끼고 다 함께 춤을 추며 멋진 밤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상상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림에 나타난 암고양이와 수고양이는 무도회에 맞게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밤하늘의 폭죽을 감상하며 춤을 추고 있다.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 처음이라 아주 미숙하지만 딸기 케이크의 향을 맡으며 달콤하게 춤을 추고 있다. 이처럼 동물들도 음악을 좋아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그림에 표현하였다.

제4장 결론

본 작품론을 통해 나의 어린 유년시절에 상상으로만 생각한 동물에 대한 호기심과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구상하고 어린 시절 행복한 감정을 나타내어주는 풍선이란 재료를 시각적인 이미지로 대입시킨 작품의 내용과 표현방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어린 시절 유독 동물을 너무 사랑한 연구자는 사람처럼 살 수 없고 행동을 취할 수 없는 동물들을 보며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었다. ‘만약 나와 친구가 된다면, 말동무도 나누고 같은 취미를 가져 더 행복한 나날들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던 유년시절의 상상들이 작품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작업의 내용과 표현방식 연구를 통해서 본인의 어린 시절 감정을 다시 한 번 읽을 수 있었고 내가 풍선을 보고 느끼는 과거의 추억과 기억들이 동물들에 대한 판타지를 동화적으로 나타내기에 적합한 재료라 분석하여 새롭고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내가 더 나이가 들고 순수함을 잃게 된다 해도 지금까지의 나의 작품들은 그 시절 기억과 감정을 나타내어 주는 감정의 매개체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본인의 작품을 작품론으로 써 봄으로써 앞으로 어떤 재미있는 요소들로 주제를 확장해 나갈지, 그리고 동화적 상상의 이야기들을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들로 발전시켜 나갈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작품론을 통해 작품의 내용과 표현 형식에 대해 재정립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유년시절과 결합이 되는 다양한 재료들도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더욱 연구하며 실험해보는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작품에 대한 부족한 점들을 채울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작품도판>



도판 6) Pink jungle/ 2021/ Acrylic, balloon, beads on panel/ 90.9x60.6 cm



도판 7) Tiger's Space/ 2022/ Acrylic, balloon, beads on panel/ 72.7x53.0 cm



도판 8) Fire show/ 2021/ Acrylic, balloon, beads on panel/ 110.0x81.0 cm



도판 9) Paradise 1/ 2021/ Acrylic, balloon, beads on panel/ 72.7x72,7 cm



도판 10) Paradise 2/ 2021/ Acrylic, balloon, beads on panel/ 72.7x72,7 cm



도판 11) 담배피는 호랑이/ 2022/ Acrylic, balloon, beads on canvas/ 50x50 cm



도판 12) 호랑이 2/ 2022/ Acrylic, balloon, beads on canvas/ 40x40 cm



도판 13) 호랭아 3/ 2022/ Acrylic, balloon, beads on canvas/ 40x40 cm



도판 14) 호랑이 1/ 2022/ Acrylic, balloon, beads on canvas/ 40x40 cm



도판 15) Beam/ 2022/ Acrylic, balloon, beads on panel/ 72.7x60.6 cm



도판 16) Animal Crossing/ 2022/ Acrylic, balloon, beads on canvas/
45.5x45.5cm

참고문헌

권정호, [재스퍼 존스의 작품에 나타난 오브제 표현의 의미] . 개명대학교 석사 논문 1984

편선미, [콜라주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2003, p.16

칼 구스타브 융, 어린이들의 꿈 해석, 부글북스, 2019, p.31-33

존 버거, 편집부 역 [이미지-시각과 미디어] , 동문예신서, 1990

아니엘라 야훼, 이희숙 역, [미술과 상징] , 서울 열화당, 1995

인터넷 “네이버 지식백과”

도판목록

- 도판 1) Strange jungle 2/ 2021/ Acrylic, balloon, beads on panel/ 100.0x72.7 cm
-----p.4
- 도판 2) Strange jungle / 2021/ Acrylic, balloon, beads on panel/ 116.8x91.0 cm
-----p.5
- 도판 3) 호랑아 골프치자-!/ 2022/ Acrylic, balloon, beads on panel/ 116.8x80.3 cm
-----p.6
- 도판 4) UP해/ 2022/ Acrylic, balloon, beads on panel/ 162.2x112.1 cm
-----p.7
- 도판 5) Feel My Rhythm/ 2022/ Acrylic, balloon, beads on panel/ 64.0x67.0 cm
-----p.8
- 도판 6) Pink jungle/ 2021/ Acrylic, balloon, beads on panel/ 90.9x60.6 cm
-----p.10
- 도판 7) Tiger's Space/ 2022/ Acrylic, balloon, beads on panel/ 72.7x53.0 cm
-----p.11
- 도판 8) Fire show/ 2021/ Acrylic, balloon, beads on panel/ 110.0x81.0 cm
-----p.12
- 도판 9) Paradise 1/ 2021/ Acrylic, balloon, beads on panel/ 72.7x72.7 cm
-----p.13
- 도판 10) Paradise 2/ 2021/ Acrylic, balloon, beads on panel/ 72.7x72.7 cm
-----p.14
- 도판 11) 담배피는 호랑이/ 2022/ Acrylic, balloon, beads on canvas/ 50x50 cm
-----p.15
- 도판 12) 호랑아 2/ 2022/ Acrylic, balloon, beads on canvas/ 40x40 cm
-----p.16
- 도판 13) 호랑아 3/ 2022/ Acrylic, balloon, beads on canvas/ 40x40 cm
-----p.17
- 도판 14) 호랑아 1/ 2022/ Acrylic, balloon, beads on canvas/ 40x40 cm
-----p.18
- 도판 15) Beam/ 2022/ Acrylic, balloon, beads on panel/ 72.7x60.6 cm
-----p.19
- 도판 16) Animal Crossing/ 2022/ Acrylic, balloon, beads on canvas/ 45.5x45.5cm
-----p.20

Abstract

A 'collaged' childhood fairy tales using balloons —Focusing on my artwork—

The inspiration for my artwork using balloons was from my childhood imagination and curiosity about animals. Balloons were one of the things I always had in my hand whenever going to 'amusement parks' as a kid. My artwork began to be created by expressing the fairy tale imagination of childhood as a visual image, regarding the balloon containing special memories of my childhood as an object. The emotions and memories of my childhood, which I have cherished, were combined with my imagination about animals to create various formative stories.

A technique called collage was used to create my artwork. Collage refers to a painting technique that glues various materials (such as paper, cloth, metal, wood, and leaf) on a surface or a painting produced by this technique. Around the 1910s, Cubists (e.g., Braque and Picasso) attached printed materials, including newspapers, wallpaper, and sheet music, to one part of their oil paintings to emphasize the concreteness of each object, which came to be called 'collage.' Various sparking beads and cut-out different-colored balloons were attached to the picture in the same fashion to express the fantasy world summoned from my childhood.

In various imaginary stories, my happy memories filled with curiosity about animals were recombined with other my curiosity. The significance of my artwork was to compose the picture in various ways by repeatedly appearing the formative elements collaged using the balloons cut-outs and using the patterns that match the emotions from one's childhood and the feeling of returning to one's childhood. The study is an exploration of the formativeness of a picture expressed by collaging various materials and the subject that I intended to express with it, based on my artwork.

Keywords: Childhood, Fantasy about animals, World of fairy tale, Collage using balloons